

비룡 잡으러 두 준혁 뜬다



임준혁

KIA 임준혁 오늘 SK전 선발·감 좋은 오준혁 기대감

임준혁, 지난해 SK전 평균자책점 1.5

kt전 4안타 오준혁 톱타자로 공격 선봉

기다림을 끝낸 두 준혁이 '호랑이 군단'의 승리 사냥에 앞장선다.

이미 개막은 했지만 아직도 시즌을 시작하지 못한 KIA 타이거즈의 선발투수가 있다. 두 차례 그라운드를 적신 불비에 등판이 미뤄졌던 임준혁이 드디어 자신의 개막전을 치른다. 12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1차전이 임준혁의 첫 무대다.

임준혁은 지난해 KIA 마운드의 새로운 축이 된 선수다. 강속구라는 무기 대신 컨트롤을 선택하는 그는 선발대란 속에 선발한 자리를 차지했고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9승을 수확했다. 올 시즌 후배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선발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개막 이후 두 차례 우천취소 경기가 나오면서 임준혁의 기다림이 길어졌다.

임준혁의 시즌 첫 상대는 지난 시즌 승률 100%를 자랑하는 SK다. 지난해 임준혁은 SK전에 세 차례 선발로 출격해 18이닝을 1.50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았다. 한 차례 승리투수가 되는데 그쳤지만 팀은 임준혁이 선발로 나온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7월28일 안방에서 김광현과 벌였던 선발 맞대결. 이날 임준혁은 퀄리티스타트(6이닝 3실점 이하)로 선발 임무를 완수했고, 팀은 1000경기 출장에 나섰던 김원섭의 끝내기 홈런으로 6-3 승리를 거뒀다.

8월19일 다시 안방에서 SK를 상대한 임준혁은 이번에는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김광수-심동섭-에반-윤석민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져주면서 2-0으로 경기가 끝났고, 임준혁은 승리투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등판이었던 8월25일 SK원정 경기로 극적이었다.

임준혁은 이날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타자들의 공격에 0-0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정규이닝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두 팀은 결국 연장전에 돌입했고, KIA는 비디오판독 끝에 고영우의 득점을 인정받으면서 1-0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임준혁은 팀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12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개입차
1 넥센	5	3	1	0.625	-
2 두산	4	3	1	0.571	0.5
3 SK	5	4	0	0.556	0.5
3 롯데	5	4	0	0.556	0.5
3 kt	5	4	0	0.556	0.5
6 삼성	4	4	0	0.500	1
6 NC	4	4	0	0.500	1
8 KIA	3	4	0	0.429	1.5
8 LG	3	4	0	0.429	1.5
10 한화	2	6	0	0.250	3

의 승리를 책임진 주역이었다.

SK전 승리를 불렀던 임준혁이 기본 좋은 기력을 안고 시즌 첫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타석에서도 준혁의 힘이 기대된다. 오준혁이 타선의 새로운 힘이다. 프로야구 데뷔 후 처음으로 개막전 엔트리에 합류했던 오준혁은 개막전 선발 출장까지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5경기에서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준혁은 지난 10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김기태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는 맹타를 휘두르며 몸 풀기를 끝냈다.

12번째 타석 만에 2루타를 날리며 시즌 안타란에 마침내 기록을 올린 오준혁은 남은 세 타석에서도 모두 안타 행진을 펼쳤다. 빠른 발을 이용해 3루타도 2개나 기록했다. 노심초사 오준혁 기 살리기에 공을 들였던 김기태 감독의 톱타자 고민을 날려준 시련할 활약이었다.

이단 수비 실수로 가리앉은 팀 분위기를 살리는 중대한 임무, 두 준혁과 타 준혁이 맡게 됐다.

한편 KIA는 주중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안방으로 돌아와 넥센과 주말 3연전을 벌인다.

지난 9일 kt와의 경기에서 최향남(41세 5개월9일)의 최요령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운 최영필(41세10개월27일)은 자신의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500경기 출장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영필이 앞으로 4차례 더 마운드에 오르려면 역대 33번째 500경기 출장 투수가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준혁

MLB 코리안리거 소식

오승환 데뷔 첫 승

류현진 이후 588일만에 한국인 승리투수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첫 승리를 거뒀다.

한국인 투수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된 건 2014년 9월 1일(이하 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선발승을 거둔 후 588일 만이다. 또 오승환은 박찬호가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0년 10월 2일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구원승을 기록한 후 2018년 11월 12일 메이저리그에서 구원승을 따낸 한국인 투수가 됐다.

오승환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터너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5-6으로 뒤진 7회말 등판해 1이닝을 삼진 두개를 결투하며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완벽한 투구였다.

오승환은 첫 상대타자 예토르 올리베이라를 시속 146km 직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후속 타자 타일러 플라워스는 볼

카운트 2B-2S에서 시속 137km짜리 슬라이더를 던져 헛스윙을 끌어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기세를 올린 오승환은 켈리 존슨을 시속 132km 슬라이더로 2루 땅볼 처리하며 이닝을 깔끔하게 끝냈다. 오승환은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 맷 할리데이로 교체됐다.

승리의 여신이 오승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할리데이가 중전안타로 포문을 열자 맷 카펜터가 몸에 맞는 공으로 2사 1-2루 기회를 이어갔다. 제러미 하젤베이커가 우전 적시타로 6-6 동점을 만들더니, 스테판 피스코티가 역전 1타점 우전 적시타를 쳤다. 바로 전 이닝 7회말을 무실점으로 막은 오승환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순간이다. 세인트루이스는 9회초 5점을 보며 12-7로 승리했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데뷔전을 치른 4일 피츠버그전부터 이날까지 4경기에서 3.2이닝을 던지며 안타를 한 개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메이저리그 첫 승'이란 귀한 선물을 받았다. /연합뉴스

김현수 분노의 안타

4경기 벤치신세 뒤 데뷔전서 멀티안타

개막 이후 4경기 동안 벤치에서 칼을 갈고 있던 김현수가 마침내 버린 칼을 휘둘렀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서 9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5-3 승리에 보탬이 됐다.

김현수는 경기 후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 볼티모어 지역지 '볼티모어 선' 등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전 긴장했던 심정을 전했다.

김현수는 "긴장된 하루였다"며 "오랜만에 타석에 선 터라 투수의 공을 맞히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개막전에서 홈팬들에게 야유를 들었던 터라 긴장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김현수가 이날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홈팬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김현수는 "그때 생각이 살짝 나기도 했

다. 더는 야유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관중들이 박수를 쳐준 덕분에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김현수는 첫 타석에서 투수와 3루수 사이로 느리게 굴러가는 타구를 보며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뽑아냈다. 김현수는 이어 매니 마차도의 투런 홈런으로 홈까지 밟았다.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유격수 앞 내야안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볼티모어 구단은 김현수의 첫 안타 공을 챙겨서 김현수에게 건넸다.

"아무도 못 가져가도록 금고에 넣어둘 것"이라고 웃으며 말할 정도로 김현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안타였다.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행운이 따라줘 마음이 놓였다. 아직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팀에 기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또 부상 악몽

종아리 염증...복귀까지 4~6주 소요될 듯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종아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는 15일 짜리 부상자 명단(DL)에 등재됐다. 구단은 3~4주 정도 결장을 예상했다.

텍사스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외야수 추신수와 포수 로빈손 치리노스를 DL에 등재했다"고 알리며 "추신수는 4~6주, 치리노스는 10~12주 정도 재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 직전 선발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2번 타자 우익수로 뛸 예정이었으나 텍사스 구단은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그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구단은 이날 4-1로 승리한 직후 클럽하우스에서 "추신수가 경기 중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면서 "정확한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MRI 검진 결과 추신수의 종아리에 염증이 발견됐고 의사는 "4~6주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추신수는 "어느 때보다 몸 상태가 좋다"며 "도루에도 욕심내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예기치 않은 부상 악령이 덮쳤다.

추신수는 텍사스에 입단한 2014년 왼쪽 팔꿈치와 왼쪽 발목 부상으로 고전 끝에 일찍 시즌을 마치고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해 전반기에 극도로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극적으로 반전하며 '출루 기계' 명성을 되찾은 추신수는 자신 있게 2016년 정규시즌을 맞이했지만 시즌 6번째 경기를 앞두고 전력에서 이탈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주면 복귀할 수 있다. 텍사스는 유망주 외야수 노마르 마차라를 메이저리그로 불러올릴 예정이다.

10일 에인절스전에서 오른 팔뚝에 공을 맞아 골절상을 입은 텍사스 주전 포수 치리노스의 상태는 심각하다. 4개월 이상 치리노스를 활용할 수 없는 텍사스는 '포수 고민'에 빠졌다. /연합뉴스